

실기하느라 대면강의 했는데… 미대·음대 등 확진자 ‘속출’

예체능 학과 중심으로 확진 잇따라
미대 확진자 중에는 4차 감염까지
기숙사서도 감염… 대학가 ‘비상’
동선 비공개에 학생들 불안 호소

대학가에서도 일상 속 감염이 번지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미대·음대 등 예체능 학과를 중심으로 실기수업을 늘려오던 일부 대학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다. 캠퍼스 안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학생이 확진되는 사례도 나오면서 대학가가 비상에 걸렸다.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17일 연세대에 따르면 이 대학 학생 1명은 전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학생은 지난 13일 오후 1시에 교내 학생회관 2층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연세대에서는 음악대학에서 조교로 일하던 대학원생 등 2명이 확진돼 격리에 들어갔다. 대학 측은 지난 11일부터 이를 동안 음악관 건물을 출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의 밀접 접촉자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받도록 안내했다.



지난 16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음악대학 건물에 출입 통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수원대 미술대학은 최근 이곳을 다니던 대학원생·교수가 잇따라 확진되며 건물이 폐쇄됐다. 미대 객원 교수가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수업을 들던 대학원생 5명이 사흘 사이에 잇따라 확진됐다. 밀접접촉자로 분류됐던 교수의 가족 3명도 확진됐는데, 이 가운데 1명이 속한 동호회 회원과 지인까지 모두 6명이 감염되는 등 4차 전파 사례도 나왔다.

고려대에서도 최근 아이스하키 동아리 학생들이 감염돼 이들의 동선인 캠퍼스 주변 식당과 카페에 대한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13일 처음 확진자

가 나온 이후 접촉자 검사 등을 통해 추가 확진 판정이 나온 것. 접촉자 등은 자가격리 됐지만, 확진자들은 이미 중앙광장과 공학관 등을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캠퍼스 기숙사에서 지내는 학생이 확진된 사례도 나왔다. 한양대에서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학생 1명이 확진되면서 내부를 방역 조치한 뒤 접촉자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교내에서 마스크를 쓴 것으로 알려졌지만, 식당과 올림픽체육관 등 주요 시설들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 당국은 밀접 접촉

자 7명을 비롯해 동선이 겹치는 60여 명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벌이고 있다.

진주보건대학교와 한국국제대학교 등 대학 2곳에서 지난 12일까지 강의한 강사도 17일 확진 판정을 받으며 대학가에 위기감을 주고 있다.

대학은 한동안 예체능 학과를 중심으로 실기·실습에 한해 대면 강의를 늘려왔다. 그러다 이번에 확진자가 나온 건물에서 이뤄지는 수업을 모두 비대면 강의로 임시 전환했다.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알려진 대학가에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에 따라 확진자의 동선이 대부분 공개되지 않으면서 불안감이 가중되면서다.

제주대는 16일 자체 공지를 통해 “제주지역 63번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 중 대학이 포함돼 오늘 오전 해당 건물을 방역한 후 폐쇄했다”고 밝혔다.

대학 측에 따르면 해당 확진자는 지난 12~13일 일부 재학생과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현재까지 확인된 밀접 접촉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확진자의 접촉자 파악에 주력하고 있지만, 대부분 동선이 비공

개되면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지 않아 불안하다고 말한다. 경기도 성남시 한 대학생은 “정부가 몇 달 전부터 확진자 동선을 비공개하면서 두려움이 크다”면서 “알려주면 방역 지침을 더 따르면서 확산하는 걸 방지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수능을 보름 정도 앞두고 고3 학생들이 수시 면접을 보러 대학가로 가는 발길이 늘고 있는 만큼 방역 당국은 더욱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학교에서 방역을 철저히 하더라도, 동아리 활동처럼 사적으로 이뤄지는 부분에서는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젊은 층의 경우 무증상 감염자도 많아 대학가 동아리 등의 활동이 다시 코로나19 전파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 연령대를 보면 40대 이하가 52.2%로 젊은 층의 비율이 증가하는 양상이다.

김탁 순천향대 부천병원 부교수는 “최근에 헬러윈이 있었고, 8월 대유행 이후 억눌렸던 소비심리가 활성화되면서 외부 활동이 늘고 있다”라면서 “개인 스스로가 식사나 커피 등 대면 활동은 줄여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코로나시대, 학급당 20명 이하로 줄여야”

서울시교육청 학생수 감축 입장문

조희연 교육감, 법제화 제안
정부·교육공동체 동참 호소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이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습격차를 줄이기 위해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에 정책 추진을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유·초·중·고 학급당 학생수 20명 시대’를 열어 나가는데 중앙정부와 각 시·도교육청, 서울교육공동체 모두가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언제라도 등교가 중지되거나 ‘등교수업·원격수업 병행’이 일상화될 수 있는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시대를 맞아 방역의 핵심인 학교 내 물리적 거리두기와 원활한 쌍방향 원격수업 진행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스1

감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줄여야 등교수업 시 교실 내 충분한 거리두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원격수업 상황에서도 쌍방향 온라인 수업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이라는 게 조 교육감의 설명이다.

더욱이 장기간에 걸친 온·오프라인 연계수업으로 인해 교육공백과 학습결손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코

로나 극복 이후에도 교육격차 심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서울시교육청은 내다봤다.

지난 9월 발표된 ‘OECD 교육지표 2020’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각각 23.1명, 26.7명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OECD 평균에 근접해 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OECD 평균인 초등학교 21.1명, 중학교 23.3명과는 차이가 있다. ‘학급당 학생수’는 국가별 교육의 비교 기준인 ‘OECD 교육지표’ 중 교육 여건을 판별하는 대표적 지표 중 하나다.

올해 기준 서울의 초·중·고등학교의 학생 배치지표는 학급당 26명이다. 학생 배치지표는 학생수 배치계획 수립의 기준이 되는 지표다. 조 교육감은 코로나19 유행이 끝나더라도 기술 혁신에 대응하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현진 기자



한국외대 ‘9회 전국 포르투갈어 경연대회’ 성료

한국외대는 외교부와 한국·브라질소사이어티, 단국대와 공동으로 ‘전국 포르투갈어 경연대회’를 최근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한국외대 신정환 부총장, 한국·브라질소사이어티 편무원 부회장, 외교부 중남미국 홍순복 과장, 한국 포르투갈·브라질 학회(KALAS) 정재민 회장을 비롯해 50여 명의 유관기관 인사 및 한국외대 포르투갈어과 교수진, 대학생들이 참석했다. /한국외대

송실대, 20일 ‘독립의 반석’ 온라인 제막식

송실대가 일제에 맞서 치열하게 투쟁하고 헌신한 송실 출신 독립유공자 88인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한 현충시설 ‘독립의 반석’ 추모비의 제막식을 오는 20일 오후 2시 유튜브로 생중계한다.

송실대는 독립유공자의 고귀한 희생정신과 애국혼을 기리고자 송실의 독립운동가들이 추구했던 독립의 반석을 형상화하고, 추모벽에 88인의 독립유공자가 새겨진 ‘독립의 반석’은 국가보훈처

의 후원을 받아 건립했다.

한편 송실대는 1897년 개교 이래 근대 문명 교육을 선도하며 민족의 자주적 근대화와 독립에 앞장서 왔다. 을사늑약 반대에 힘쓰고 신민회 및 조선국민회 활동 등을 전개하면서 국권 회복을 목적으로 독립전쟁에 대비하여 국외 독립군 기지 건설 운동과 무관 양성에 주력했다. /이현진 기자

기업 10곳 중 4곳 “Z세대 사원 불만족”

불만족 이유 1위 “책임감 부족”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 사이에 태어난 Z세대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안정성과 실용성을 추구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 이러한 Z세대 신입사원을 맞게 된 기업은 이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사람인이 기업 392개사를 대상으로 ‘요즘 세대 신입사원’을 주제로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42.6%는 과거 신입

사원과 비교해 Z세대 신입사원에 대해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비슷하다’는 응답은 39.5%였고, ‘만족한다’는 17.9%에 불과했다.

실제로 Z세대 신입사원에 대한 만족도 점수는 평균 ‘60점’으로 그리 높지 않게 집계됐다. 조직적응력도 이전 신입사원에 비해 ‘낮아졌다’ (54.1%)는 응답이 과반을 넘었다.

그렇다면, 기업들이 Z세대 신입사원들에게 느끼는 약점과 강점은 무엇일까?

Z세대 신입사원들이 이전 세대 신입사원보다 부족한 것으로는 ‘책임감’ (41.6%, 복수응답)을 1위로 꼽았다. 다음은 ▲배려 및 희생정신(36.2%) ▲근성, 인내력, 강한 소신 및 추진력 (34.9%) ▲기업문화 적응력(23.2%) ▲협업 능력(22.2%) ▲대인관계 구축능력 (21.9%) 등의 순서였다. 반면, Z세대의 최고 강점으로는 단연 ‘디지털 신기술 활용 능력’ (43.6%, 복수응답)을 꼽았다. 다음은 ▲빠른 이해와 판단(33.9%) ▲다양한 활동 경험(29.1%) ▲외국어 등 글로벌 역량(20.2%) ▲의사소통능력 (8.2%) 등을 들었다. /이현진 기자

건국대 취업지원센터 AI역량검사 체험권 무료 제공

건국대 취업지원센터 대학일자리사업단은 최근 대기업과 공기업에서 도입한 인공지능(AI) 역량검사를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AI역량검사 체험권을 무료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사업단은 무료 AI역량검사에 앞서 18일과 23일 AI면접 전문 기업인

‘마이다스인’ 담당자를 초청해 AI역량검사 채용 트렌드와 프로세스 등을 안내하는 특강을 진행한다. AI역량검사 체험은 선착순 450명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된다. 총 1회 1시간 동안 진행되는 AI역량검사는 재학생 및 최근 졸업생에게 우선적으로 기회가 제공된다. /이현진 기자